| 산업통상자원부 http://www.motie.go.kr | 보 도 자 료 | 보다 나은 정부 |
|---|---|---|

**2018년 12월 12일(수) 조간부터**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(인터넷, 방송, 통신은 12. 11일(화) 오전 11시 이후 보도 가능)

| 배포일시 | 2018. 12. 10.(월) | 담당부서 | 인증산업진흥과 |
|---|---|---|---|
| 담당과장 | 김동원 과장 직무대행 (043-870-5509) | 담 당 자 | 이정근 연구관(043-870-5504) |

# 국가 인증을 통해 순환경제 사회를 꿈꾼다

## - 국표원, '자원순환과 국가인증'을 주제로 국가인증제도포럼 개최 -

□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(원장 이승우)은 '18.12.11.(화) 서울 엘타워에서 자원순환산업체, 인증기관, 시험기관 및 관련 연구기관 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**국가인증제도포럼**을 개최했다.

**【 2018 국가인증제도 포럼 개요 】**

◇ 일시·장소 : '18.12.11.(화) 14:00~17:00 / 엘타워(서울 양재동)

◇ 주제 : 자원순환제품 국가인증의 당면 과제 및 미래 모델

◇ 의의 : 국가인증제도 운영을 통해 한 해의 대표 이슈를 선정하고, 산업계와 국가인증제도의 미래발전 방안을 모색하는 토론의 장 마련

○ 이번 포럼은 올 초 발생한 폐비닐 수거 대란과 미세플라스틱 오염 논란 등으로 국가적 차원에서 순환경제*체계 구축이 절실한 만큼, 『자원순환과 국가인증**』을 주제로 진행했다.(붙임 1 참조)

* 폐기물의 생산공정 재투입 등을 통하여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환경영향을 최소화시키는 경제 패러다임

** 자원순환제품 대상 국가인증 : 우수재활용제품인증, 재제조품질인증, 환경표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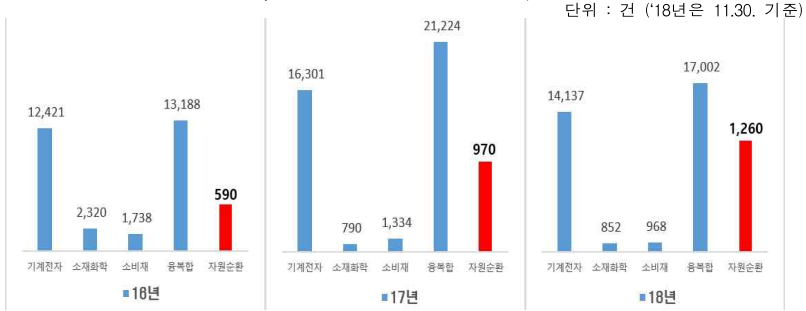
□ 한편, 국가 상담창구인 '1381 인증표준콜센터'의 자원순환 인증상담 건수는 '16년 대비 **114% 증가한** 1,260건(11.30일 까지)으로

○ 전체 인증상담 건수가 큰 변화가 없었다는 점(54,455건 '16.12월 기준 → 53,1647건 '18.11월 기준)에 비추어 볼 때, 기업은 자원순환 제품인증에 대한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다고 보여 진다.(붙임 2 참조)



〈분야별 상담건수 변화〉

단위 : 건 ('18년은 11.30. 기준)




□ 이날 행사에서 발표자들은 우선적으로 '자원순환제품 국가인증'에 대한 지원을 법제화하고, 향후 미래폐기물*에 대한 고부가가치 자원순환 제품(인듐, 백금 등)을 포함하도록 인증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.

* 4차산업혁명과 관련된 모바일기기, 컴퓨터, 구동모터, 산업용 통신설비 등에 인듐, 나오비듐, 탄달륨, 백금, 리튬 등 희소 금속이 포함

○ **(제도 정비)** 자원순환제품 품질에 대한 공신력은 순환사회 형성의 촉진제이므로 **국가인증의 통합 조정 및 구매촉진 방안**을 마련 필요

○ **(신수요 대응)** 희소금속의 재자원화를 위한 국제표준 준수 및 희소금속 **자원순환제품 인증 품목 도입 등 신수요 대응**이 절실

**〈희소금속 재활용을 위한 국제표준화 활동 동향〉**

○ 전자폐기물 함유 희소금속 재자원화 위한 표기법 및 정보 교환법 표준 개발 (ITU-T (국제전기통신연합) 표준 L.1100, L.1102)

- 통신 기기에 포함된 희소금속의 재자원화를 위해 생산자와 재활용 업자 간의 약정된 함량, 품위, 위치 등 정보를 바코드와 QR코드의 방법으로 제공

□ 국표원 주소령 적합성정책국장은 **"자원순환제품 국가인증은 환경과 산업을 동시에 아우르는 지속가능발전 정책의 핵심도구"**라면서,

○ **"1381 인증표준콜센터를 통하여 기업의 인증애로를 신속하게 지원**하고, 환경부 등 관계부처 협의을 통하여 국가인증제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."하고 말했다.

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인증산업진흥과 이정근 연구관(☎ 043-870-5504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
## 붙임 1 | 국가인증제도 포럼 개요

□ **일시/장소** : 18.12.11.(화) 14:00~17:00 / 엘타워(서울 양재동)

□ **참석자** : 자원순환산업체, 인증기관, 시험기관 관계자 100여명

□ **개최목적** : 자원순환 제품 국가인증제도 발전 방안 도출

□ **프로그램**

| 구 분 | 시 간" | | 내 용 |
|---|---|---|---|
| | 14:00~14:05 | 5" | **발표세션 개회사** |
| | 14:05~14:35 | 30" | **자원순환제품 국가인증의 경제학적 의미**<br>(국가기술표준원 연구관 이정근) |
| 발표 1 | 14:35~14:55 | 20" | **우수재활용제품인증 현안 및 발전방안**<br>(자원순환산업진흥협회 민경보) |
| | 14:55~15:15 | 20" | **환경표지제도의 성과 및 발전방안**<br>(한국환경산업기술원 김재석) |
| | 15:15~15:35 | 20" | **재제조제품품질인증제도의 특수성 및 활성화 방안**<br>(한국생산기술연구원 강홍윤) |
| 발표 2 | 16:00~16:20 | 20" | **자원순환제품 인증의 새로운 영역**<br>(한국생산기술연구원 김범성) |
| | 16:20~16:40 | 20" | **자원순환제품 인증제도의 법제 개선방안**<br>(중앙대학교 이종영) |



## 붙임 2 | 1381 인증표준 콜센터를 통한 인증애로 해소 현황

□ **콜센터 개요**

○ 국내·외 여러 인증·표준으로 인한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1381 콜센터를 개소('14.3.26.)하여 운영 중 (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에 위탁)

○ 유선 및 온라인 상담, 필요한 경우 대면상담을 통해 117개국 43천여종의 인증 획득과 표준 활용을 지원

□ **상담의 분야별 분류**

○ 강제인증이 많은 전기·전자 분야(약 20%) 및 융복합 분야(약 20~30%)의 상담이 가장 활발하며, 무역 장벽에 어느 정도 적응이 된 화학 분야 등은 상담 감소 추세

(단위 : 건)

| 분야 | '16년 | '17년 | '18년 (11.30 기준) |
|---|---|---|---|
| 전기,전자 | 10,999 *(20.3%)* | 14,910 *(21.7%)* | 13,255 *(24.9%)* |
| 기계,자동차,조선 | 1,422 *(2.6%)* | 1,391 *(2.0%)* | 882 *(1.7%)* |
| 화학 | 923 *(1.7%)* | 599 *(0.9%)* | 483 *(0.9%)* |
| 철강,금속,건자재 | 1,397 *(2.3%)* | 191 *(0.3%)* | 369 *(0.7%)* |
| 의료,화장품,식품 | 1,738 *(3.2%)* | 1,334 *(1.9%)* | 968 *(1.8%)* |
| 융복합 | 13,188 *(24.2%)* | 21,224 *(31.0%)* | 17,002 *(32.0%)* |
| 기타 문의 등 | 24,788 *(45.5%)* | 28,907 *(42.2%)* | 20,205 *(38.0%)* |
| 계 | 54,455 | 68,556 | 53,164 |

□ **상담 해결 유형**

○ 산업의 융복합화에 따라 인증이 복잡다기한 형태로 변화하고 있어 시험기관 특정이나 즉시 답변이 어려워져 유관기관과 함께 지속적 상담하는 경우가 늘고 있음

(단위 : 건)

| 해결 유형 | '16년 | '17년 | '18년 (11.30 기준) |
|---|---|---|---|
| 유선상 답변으로 완료 | 10,614 *(19.5%)* | 12,916 *(18.8%)* | 9,028 *(17.0%)* |
| 추가 자료 제공 | 12,037 *(22.1%)* | 11,645 *(17.0%)* | 11,642 *(21.9%)* |
| 해당 시험인증기관으로 안내 | 4,615 *(8.5%)* | 9,936 *(14.5%)* | 2,006 *(3.8%)* |
| 유관기관 안내 후 상담 지속 | 27,189 *(49.9%)* | 34,059 *(49.7%)* | 30,488 *(57.3%)* |
| 계 | 54,455 | 68,556 | 53,164 |